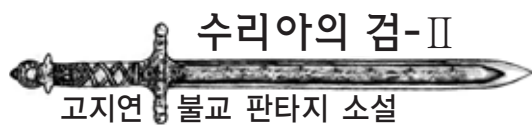


세상에 해야할 일이 어디 있냐? 보리 추수 말고



이야기의 시작 - 운명과 예언 (7)

그로부터 며칠 후, 난다의 생일이었다. 무니는 친구의 집을 찾았다. 텃밭감과 지난 가을에 자신이 주운 밤송이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였다. 장갑은 세라가 난다에게 선물한 목도리와 색을 맞춰 엄마가 직접 뜯어준 것이었고, 밤송이는 집에 보관해둔 것 중에서 가장 크고 알찬 것이었다. 함께 화로에 구워먹으면 맛있을 거라는 생각이 집이 절로 활짝 벌어졌다. 무니는 손이 찢리지 않도록 종이로 잘 싼 밤송이를 흐뭇하게 바라봤다. 그러나 정작 난다는 집에 없었다.

“할아버지와 함께 오두막에 있단다. 밤금 세라도 왔다가 선물만 두고 갔는데, 못 봤나?”

“못 봤는데.”

“하얀간 며칠 췌, 거기서 나오시길 않는구나. 한 몇 년은 거길 자주 안 가시더니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어. 난다까지 데리고 말아야. 너도 알겠지만, 개는 정말 책 읽기를 싫어하잖나? 아무튼 아무도 오지 말라고 하셔서, 우리도 그냥 걱정만 하는 중이야. 그 나처럼 어머, 그거 난다 줄 거니?”

“아이야, 손에 든 걸 보고 아베레가 말했다. “응.” 하며 무니는 일단 장갑만을 건넸다. “정말 예쁘구나. 역시 마야는 손재주가 좋다니. 세라가 가지고 온 목도리랑 하면 아주 잘 어울리겠는걸. 그런데 나 머지 손에 든 건?”

“아, 이간...”

무니는 망설였다. 지금 선물이라고 건네면 난다 혼자 밤송이를 까게 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함께 못 먹을 수도 있다! ‘아, 어찌지?’ 무니는 엄마와 유리 영감을 제외하고는 어른을 대하는 일이 늘 곤혹스러웠다. 그러나 그때 다행히도 유리 영감과 난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 지금 돌아오시나 보구나.”

문 쪽으로 종종 걸여가는 난다네 엄마를 보며 무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잠시 후, 무니와 난다는 지금 막, 간 밤을 화로에 집어넣는 중이었다. 껍질 안에는 밤이 여섯 개나 들어있었다.

“맛있겠다.”

난다가 화로 안에서 타기 시작하는 밤을 기분 좋게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데 유리 영감이랑 오두막에서 뭐했어?”

“책 읽었어.”

무니가 “으악!” 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너희 할아버지 너를 자기처럼 만들고 싶은 거 같아. 이제 이 마을에서 영감 다음으로 제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너일걸. 네가 하기 싫다고도 안 하니깐 더 그러는 거야.”

난다는 “글쎄...”라고 말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무니는 어쨌든 친구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두 소년은 밤 껍질이 타면서 내는 탁! 탁! 하는 소리

를 들으며 그렇게 잠시 말없이 앉아있었다. 그리고 그 후로 난다는 정말 달라져 갔다. 같이 웃고 떠들고, 노는 건 같았지만 정해진 시간이 되면 언제나 할 아버지 오두막으로 달려갔다. 난다는 단지 공부 시간이라고만 말할 뿐이었다.

무니는 이웃들에게 부탁 받고 끌고 나온 소, 염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정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풀을 뜯고 있었다. 짙은 모르지만 파릇파릇하게 자라나고 있는 연두색 풀은 겨울 내내 먹었던 마른 여름이나 여름의 풀보다 맛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칸타카처럼 마음이 통하는 건 아니었지만, 무니는 가족들의 표정을 보면 그 기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 이 일은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하는 농사일이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을 돌보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에겐 사람이 동물보다 훨씬 편했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뒤에서 무니를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거나 하지 않았다. 풀을 뜯거나 그늘에 누워 잠을 자거나 할 뿐이었다. 무니는 길게 기지개를 폈다. 칸타카도 주인을 따라 목을 길게 내뻐는 시늉을 했다. 그런 칸타카의 모습에 웃던 무니는 문득 이제 곧 자신이 태어난 지 이 년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염소 다 도망간다!”

누군가 갑자기 외쳤다. 순간 무니가 깜짝 놀라 눈으로 염소를 찾기 시작하는데, “히히”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난다였다. 친구를 놀래주기 위해 살짝살금 다가오다 그렇게 소리를 친 것이다.

“뭐야!”

난다가 혀를 내밀며 소리내 웃었다. 그런 모습에 눈을 흘기던 무니가 짓웃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오두막에서 몰래 나왔구나?”

그 말에 난다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응. 점점 할게 늘어나. 머리에 갑자기 너무 많은 걸 넣었더니 아주 난리야.”

무니는 그런 친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런 걸 왜 하고 있나.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 하라니까.”

“그럴 수 없어. 내가 해야 할 일이나.”

“세상에 해야 할 일이 어디 있냐? 보리 추수 말고.”

“있어, 있더라고.”라며 난다는 또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다 “아!”하며 무니를 쳐다봤다.

“너도 같이 공부하면 되겠다! 왜 할아버지는 너는 가만 두시지? 공부야 같이 해도 되는데.”

무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뭘 소리아? 괜히 영감한테 그런 말 꺼내지 마. 만약에 그러면 가만 안 둔다!”

난다에게 이미 무니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정말 왜 자신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도 물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애초에 무니에게도 글을 가르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요즘 들어 통 무니를 부르시지 않는 게 의아했다.

한편, 오두막에 들어온 유리 영감은 손자가 펼쳐놓



삼화·김홍인

은 책들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난다가 책을 펴고 읽는 모습이 보였다. 난다는 책을 읽는 모습이 참 귀엽게 보였다. 난다는 책을 읽는 모습이 참 귀엽게 보였다.

난다가 책을 읽는 모습이 참 귀엽게 보였다. 난다는 책을 읽는 모습이 참 귀엽게 보였다. 난다는 책을 읽는 모습이 참 귀엽게 보였다.

난다는 책을 읽는 모습이 참 귀엽게 보였다. 난다는 책을 읽는 모습이 참 귀엽게 보였다. 난다는 책을 읽는 모습이 참 귀엽게 보였다.

난다는 책을 읽는 모습이 참 귀엽게 보였다. 난다는 책을 읽는 모습이 참 귀엽게 보였다. 난다는 책을 읽는 모습이 참 귀엽게 보였다.

난다는 책을 읽는 모습이 참 귀엽게 보였다. 난다는 책을 읽는 모습이 참 귀엽게 보였다. 난다는 책을 읽는 모습이 참 귀엽게 보였다.

난다는 책을 읽는 모습이 참 귀엽게 보였다. 난다는 책을 읽는 모습이 참 귀엽게 보였다. 난다는 책을 읽는 모습이 참 귀엽게 보였다.

난다는 책을 읽는 모습이 참 귀엽게 보였다. 난다는 책을 읽는 모습이 참 귀엽게 보였다. 난다는 책을 읽는 모습이 참 귀엽게 보였다.

난다는 책을 읽는 모습이 참 귀엽게 보였다. 난다는 책을 읽는 모습이 참 귀엽게 보였다. 난다는 책을 읽는 모습이 참 귀엽게 보였다.

아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뭔가를 결심한 것처럼 단호했던 표정을 보였다. 그리고 안에서 무척 오래돼 보이는 커다란 책을 꺼내 펼쳤다. 그러나 그것은 책이 아니라 보관 상자고, 그 안에는 언뜻 봤을 때 회색시계하고도 비슷하게 생긴 물건이 들어있었다. 유리 영감은 그걸 꺼내 들었다. 하나의 원 안에 각각 금, 은, 동, 나무로 되어있는 작은 수레바퀴가 빈틈없이 맞물려 있는 게 보였다. 어떻게 보면 나침반 같기도 했다. 그는 무엇인가 생각하는 표정으로 그 물건을 가지고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그 수레바퀴를 응시했다. 뭔가를 묻는 시선이었고, 나무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다. 결과는 저변과 같았다. 유리 영감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은 활기를 띠었다. 보리 수확기가 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함께 추수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그늘에 모두 모여 앉아 다 함께 식사를 했다. 무니와 마야 역시 마찬가지였다.

“난다가 없네. 영감도 없고.”

유수수를 먹던 무니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난다네 부모들은 분명히 보이는데, 그 두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

간 눈이 마주친 건 촌장이었다. 촌장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찾는 건 자신과 엄마 마야가 분명했다. 무니는 얼른 눈을 피했다.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때 누군가 두 모자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오늘은 무니도 꼼짝없이 여기 있네?”

아베레가 어느 새 무니 앞에 와서 아는 척을 하더니 마야와도 반갑게 눈인사를 나누었다.

“난다는 안 왔어?”

무니는 촌장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지만, 모른 척하며 물었다.

“아이구. 그제, 또 사를 전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오두막에서 나오지 않고 있단다. 분명히 오늘부터 공동 작업일이라는 걸 아실 텐데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촌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했어.”

아베레는 갑자기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무니야, 요즘 난다가 좀 달라진 거 같지 않나? 말 수도 부쩍 줄고 말이야.”

확실히 난다는 달라졌다. 며칠 전 난다와 풀밭에서 만난 것 말고는 같이 놀아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정말 공부 때문일까.

“응. 확실히 이상해졌어.”

<p>불자 정보</p> <p>832호 TEL 02) 2004-8215(직) 732-1522 FAX 02) 737-0696</p>	<p>암자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성리 대지 200평, 바로 뒤에 산 입법당 1동, 산신각 1동 방4, 창고1, 공양간, 보일러실, 샤워실 가액: 7천 5백만원 <p>010-7377-3574</p>	<p>사찰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부산 동구 수정1동 부산 진여 지하철 5분거리 총평수 70여평 법당 40평, 요사채(별채)30평 가액: 2억 7천만원 <p>010-2326-2176</p>	<p>사찰(금)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10거리)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주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일반 재가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징: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목불 (약 250년),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 위주 전시) 일사관 외벽만다라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전도제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바 있음. ■ 임야 10,500평은 대형저수지로서 2011년 2차선 공사가 완공되면 어떠한 명목으로 허가 가능함. ■ 임야 제외 34억, 사찰만 할 경우 32억 ■ 상기 면적중 성취관 (240평)의 불상 및 전시관에 조성자금 소요 자금만 받고 있음. (기타 일체 무료)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010-4504-0174 <p>대덕님께서 운영하시면 널리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대성공을 확신합니다.</p>	<p>3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p> <p>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행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p> <p>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p> <p>행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4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p>35 친절상담</p> <p>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p> <p>행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p> <p>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p>
<p>사찰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남 김해시 생림면 • 대지 220평 • 텃밭 40평, 법당 15평, 산신각 4평 • 지장전 25평, 요사채 37평, 심야 및 기를 보일러 • 가액 1억 7천만원 <p>010-8327-3808 055)338-3885</p>	<p>포교원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기도 안성 • 3층건물 전체 • 3층: 요사채 • 2층: 법당, 삼불, 신중, 칠성, 산신, 영단, 원불 500분 • 1층: 친견실 및 공양간 • 시설비 절충 • 가액: 2억 5천만원 <p>010-8678-0520</p>	<p>사찰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산 • 바다가 보이는 곳 • 300평 • 법당 25평, 목조건물, 동북간 요사채 1동 • 주차장 확보 • 가액: 8억 <p>영주불사 010-9798-1091</p>		
<p>포교원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남 진주시(서부시장옆) • 평수: 50평(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 가액: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 최고시설(시설비는 답사후결정) <p>010-4668-7380</p>	<p>전원주택 토굴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인제원동 터미널에서 15분거리,산중턱 • 전원주택겸 토굴로 사용가능 • 마당까지 차진입가능 • 이중 후벽돌, 심야보일러 • 총 1,400평, 대지 300평 • 건평 25평, 발 잘가꾸어져 있음 • 앞에는 큰강 산세 수려 • 가액: 3억 3천만원 <p>010-3337-9736</p>	<p>암자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 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임야 10,000평, 대지 200평 <p>010-4876-5535</p>		